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행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간계에는 무시가 답이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 씨가 열흘 사이에 던진 카드는 정상 상황일 때에는 하나 하나 메가톤급 폭발을 몰고 올 것이었습니다.

10.30(일) 상황을 보죠. 최순실이 전격 귀국했고, 우병우 민정 수석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경질됐습니다.

10.31(월) 30시간 지나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했고 심야에 긴급 체포를 당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11.02(수) 황교안 총리를 문자로 경질하고 '옛 노무현 정부 교 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씨를 총리로 내정했으며, 안종범 전 정 책조정수석이 긴급체포됩니다.

11.03(목) 최순실이 끝내 구속됐고, 옛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가 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됩니다.

11.04(금) 박근혜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11.06(일) 우병우가 검찰에 출두했고요.

박근혜 씨는 어제 국회에 찾아가 총리 인사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야에는 또 다른 비선실세 차은택이 눈물을 흘리며 귀국했고, 체포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벤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론에 의해 그날로 일축됐고, 아무 파장도 없이 소멸됐거나 묻히고 맙니다.

사실 박근혜 씨는, 측근 무당이 온갖 전횡과 악행을 저지른 것 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어리석게 당했다, 박근혜씨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 를 넘는 와중에서도 박근혜 씨는 총체적 국정농단의 공범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는 또 다른 카드인 2선 후퇴를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 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아니면 주말 지나 할지 모릅니다. 얼마 없는 카드를 한꺼번에 써먹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 박근혜 씨는 잃을 게 없습니다. 만약 야당이 받아들여도, 훗날 그 악 속, 안 지키면 그만이니깐요. 야당이 반발해도 그때쯤이면 성난 민심은 수습돼 있을 거라 믿을 겁니다.

하야 아닌 상황 즉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국정마 비는 물론 국민기만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를 국 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 100만 집회설이 나돌고 있으 니 말입니다.

요컨대 지금 범죄자 박근혜 씨에게 들어야 할 말은 이것 뿐입니 다. "하야하겠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9일(수) 1부 | 야당 타협 공리하나·차과 함께 타도될 것

[오프닝] 국민 희롱 박근혜 간계... '닥치고 하야로 응수해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블랙리스트 이행 소극적인 문체부 차관 날리기도 했다
- 이미 헌법에도 있는 '총리 내각통할권' 갖고 생색낸 실없는 차
- 우병우 민정수석실, 롯데 압수수색 보고받고 최순실에
- 최순실 측근 박원오 "문체부 국장 잘린 거 봤나" 삼성 협박
- '장사 안된다'... 박 대통령 흔적 지우는 상인들

[뉴스듣기능력평가] 제2의 하야 대통령 최규하 관련 퀴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북핵 위기로 APEC회의의 참석 않기로 9월에 결정했다'는 기만

-미국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혼란 중 통과시키려나

-아무래도 힐러에게 기운 듯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여야합의 중립총리 논의를 보고 든 동아일보 때의 경험담

[공화국 논평] '하야 팻말' 단 정의당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허걱~! 트럼프 승리

오늘 미국 대선에서 세계의 예측을 뒤집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이기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들 대부분을 차지하며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던 대부분 언론의 예상을 뒤집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17개월 동안 기존 정치문법을 모두 깨뜨리며 이번을 연출해왔다.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공화당 경선에서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잇달아 쓰러뜨리고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보수적인 공약을 내걸고 거대 자본의 지원 아래 막대한 선거자금을 모아 TV광고를 쏟아부은 식의 선거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오히려 승리요인이었다. 주류 미디어의 비판은 무시한 채 소셜미디어를 소통 수단으로 삼아 막말을 불사하며 자기 생

각을 쏟아냈다. 그의 돌출 언행은 늘 언론에 대서특필됐기에, TV광고에 따로 돈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 선거자금도 많이 모이지 않았다.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이들은 '아웃사이



더' 트럼프에 열광했다.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그를 평가절하했으나 선거 결과는 트럼프식 선거법이 유효했음을 보여줬다. 세계화 속에서 일자리가 줄고 미국 내 계층구조에서도 아래로 밀려날 처지가 된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트

럼프의 선동적인 포퓰리즘 주장에 호응했다.

막말을 일삼고 '미국의 리더십'을 부인하며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이민자 반대를 외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를 계속해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력시됨으로써, 세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외교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커질 것만은 확실하다.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중국과는 무역 마찰을 빚고, 유럽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 등의 안보비용 문제로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한창인 중동은 사실상 방치할 것이며,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

보수언론도 확인한 블랙리스트 실체

東亞日報 블랙리스트 이행 안 해 차관 경질

좌파 예술인에 대해 청와대가 지원을 못하도록 했다는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또한 좌파로 분류된 예술인 명단 즉 블랙리스트는 정부수석실 내 국민소통비서관 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수석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고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1차관이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1차관은 좌파 예술인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올 2월 돌연 물러나게 됐다고 한다.

좌표 인식 불능

한겨레 박근혜, 간계로 모면할 수 있다 만나

대통령 박근혜 씨는 어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86조와 87조에는 이미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총리의 권한은 헌법의 규정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정'이나 '해임 건의'가 아니라 실제로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박근혜 씨가 권한을 어디까지 총리에게 넘길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추천을 받은 총리도 허수아비에 그칠 수 있다.

경향신문 “국회 추천 총리로는 어렵도 없다”

어제 대통령 박근혜 씨는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이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 소개한다. “어제 박근혜 씨의 제안은 촛불민심은 물론 야당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선다는 언명이 전혀 없었다. 또한 박근혜 씨는 야당 대표들이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급히 정 의장을 찾아와서는 10분 동안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돌아섰다. 진정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먼저 박근혜 씨가 퇴진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렵다.”

우병우, 수사기밀 토스했나

한겨레 최순실이 롯데 압수수색 어떻게 알았나

검찰의 롯데 수사팀은 지난 6월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동원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롯데가 검찰 수사를 눈치채고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첩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로서는 현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수사인 롯데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검찰 쪽에서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혹의 시선이 모인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최순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K스포츠재단 측이 롯데에 70억 원을 출연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부터 받은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생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대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정유라 가족

한겨레 삼성, 정유라에 최소 100억원 전달

어제 검찰이 삼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도 포함됐다. 최순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 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이외에 최순실과 정유라가 소유한 독일 회사에 35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의혹이 있다. 그러나 최순실 모녀 소유의 회사 '코어스포츠'의 전 직원은 6개월 동안 매달 80만유로가 통장에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럴 경우 최순실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만 해도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崔 측근, 삼성 협박해서 정유라 지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최순실의 측근으로서 정유라를 승마계에서 키워준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데 박원오씨가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을 협박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원오씨는 200억원 규모의 승마사업을 삼성측에 제안하면서 '문체부 국장 잘리고, 승마협회 직원들 날아간 거 보지 않았나' 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차은택·안종범의 연결고리

東亞日報 안종범, VIP 들먹이며 KT 인사 개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의 인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KT 황창규 회장에 전화로 걸었고 VIP의 관심사항이라며 이동수씨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동수씨는 차은택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측근이다. 검찰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최순실-차은택-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밝히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 최순실 집사, 안종범과 친분 과시

독일 교민인 윤영식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행' 기획자로 알려져있다. 이른바 최순실의 '총괄 집사'이다. 그런데 윤영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명함이 윤영식씨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장관 수석도 안 만나면서

한겨레 朴, 올해 2월에도 재벌 총수들 독대

지난해 7월 이외에 올해 2월 18일에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대 전날인 2월 17일에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유라에 이어 장사호도

머니투데이 장시호도 연세대 입학 특혜 의혹

정유라의 사촌언니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도 연세대에 입학할 당시 특혜를 누린 정황이 포착됐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와 비슷한 형국이다. 연세대는 1998년 이전까지 단체종목 특기생만 뽑아왔다. 하지만 장시호가 입학한 1998학년도에는 개인종목 특기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격요건도 느슨하게 적용했다. 입학자격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천만 받아도 지원할 수 있고 수능점수는 4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됐다. 장시호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오늘을 읽는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탐사

레베카 솔닛 저
펜타그램, 2012



저잣거리에서도 탄핵

경향신문 “박근혜 사진 걸었더니 장사 안 돼”

대통령 박근혜씨가 방문했던 음식점 업주들이 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인한 성난 민심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의 한 삼겹살거리. 이곳은 2014년 박근혜 씨가 방문해서 많은 곳에 보도됐고, 상인들은 박근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음식점에 걸고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곳 상인들은 박근혜씨 사진을 떼어냈다. 거부감을 보이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다. 시장을 찾는 손님도 줄었다. 충남 부여의 한 음식점도 가게 외부에 걸린 박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다. 이곳은 ‘대통령이 다녀간 곳’이라며 홍보를 해 왔던 곳이다.

오늘의 조선일보

朝鮮日報가 총리 임명 재촉하는 이유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기사는 영향력보다는 보수 기득권세력의 현재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오늘 자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총리 임명을 재촉하고 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이 국정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공세를 펴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소개한다. “학계와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다시 명확히 밝히고,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적 위기 국면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야당도 일보씩 물러나서 수습책을 찾아야지 자꾸 외교집을 부러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토요일 촛불대혁명 예견

국민일보 인터넷, 100만 모일 가능성에 촉각

국민일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페이스북의 여론을 소개했다. 일부 소개한다. “이번주 토요일에 열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참여 열기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넷 곳곳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집회 동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의 촛불집회에서 1주일만에 10배의 시민들이 나왔으니 12일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이 모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은 촛불집회 열기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날이 2015년 11월 14일이라는 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혼란 정국, 미국 협정의 호기?

한국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타결 코앞으로

한일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지난 1일 첫 회의 이후 불과 1주일 여 만으로,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은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지금 이 마지막 기회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지금 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기고문이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단언컨대, 지난 50년간 한국을 이끌어 온 경제정책 기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허리를 졸라매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재벌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한답시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낮추면 내수마저 쪼그라들 테고, 박근혜의 규제완화는 재벌3세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즉 부동산과 유통의 독점화, 그리고 자연의 파괴만 부추길 것이다. 삼성의 갤럭시노트7이 폭발하고 현대차가 100만대 이상 재고로 쌓여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망국의 역사는 훨씬 뿌리 깊다. 기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대한민국만큼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는 없었다. 가히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만하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출발선이 어수룩했으니 교육과 노동이 사회적 이동을 촉진했다. 한국 압축성장의 비결은 평등이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군사독재 아래서도 당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들과 보수언론들이 부와 사상을 독점했고 김영삼이 ‘세계화’를 외친 이래 정부마저 본격적으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고 앞장섰다. 한국경제의 모든 장기지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쁜 쪽으로 급속하게 꺾였다.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불평등’이 일어났다.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는 ‘헬조선’이다. 세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사장시킨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노비와 여성들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랄한 재능도 피어나지 못한 채 묻힐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만인의 자유가 어우러지는 공화국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경제위기와 심지어 전쟁이라는 파국을 맞을 것인가? 광장의 촛불이 바야흐로 들불로 타오를 것인가? 12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꼭두각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